

통찰력



코브레 & 김의 **Andrew Stafford** 칙선 변호사, 영국에서의 소송 동향 논의

2016 03 14

출판물: *더 로이어*

Andrew Stafford 칙선 변호사는 *더 로이어*지의 기사를 통해, 런던 금융/재정 법률 시장의 새로운 규제 환경과 동향을 진단하였습니다. Stafford 변호사는 금융 목록, 외환 및 런던 인터뱅크 제시 금리 관련 조사로 인한 상사 소송의 증가, 그리고 부실 기업들이 부실 악화를 은행의 "강요" 탓으로 돌리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면서, 내년에는 영국의 금융/재정 분쟁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런던은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지로 계속 인기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

기사는 [여기](#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